# ‘적수가 없다’ 안세영, 싱가포르 오픈 2년 만 ‘정상’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싱가포르 오픈 정상을 2년 만에 탈환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오픈 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세계랭킹 3위)를 2-1(21-11 17-21 21-19)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 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여자 배드민턴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올해 역시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 인도오픈 2연패, 아시아남녀단체선수권 생애 첫 우승에 이어 아시아개인선수권까지 제패하며 그랜드슬램(올림픽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을 달성했다. 이어 우버컵까지 점령하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단 두 게임만 내준 채 우승을 따냈다. 대회 32강전에서는 심유진(인천국제공항·세계랭킹 31위)를 2-0으로 가볍게 제압한 뒤 16강전에서 쑹숴원(대만·세계랭킹 36위)을 2-0, 8강전에서 푸살라 신두(인도·세계랭킹 11위)를 2-0으로 꺾었다. 4강전에서는 ‘천적’ 천위페이(중국·세계랭킹 4위)에게 2-1로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 결승서 일본 야마구치와 접전 끝 2-1 승
## 말레이시아·인도·꾠선수권 이어 상승세

결승전에서는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을 꺾은 야마구치를 만났다.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었지만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됐다. 실제 접전 끝에 2-1 승리를 거뒀고, 그 결과 상대 전적 17승 15패로 앞섰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로 격차를 더욱 벌렸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5-6으로 뒤진 상황에서 상대 범실을 유도하며 6연속 득점에 성공, 흐름을 단숨에 가져왔다. 이후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21-11로 첫 게임을 따냈다.

2게임에서도 초반 6-1까지 앞서며 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야마구치의 반격이 거셌다. 12-12 동점을 허용한 뒤 한때 다시 리드를 잡았으나, 17-17에서 연속 실점하며 17-21로 게임을 내줬다.

승부는 마지막 3게임으로 향했다.

3게임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16-16 상황에서 야마구치에게 3연속 점수를 허용하며 패색이 짙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세계랭킹 1위의 저력은 마지막 순간에 빛났다.

17-19에서 내리 4점을 따내며 20-19 역전에 성공한 안세영은 마지막 랠리에서 야마구치의 범실을 끌어내며 극적인 우승을 확정했다.

전날 준결승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경기를 잠시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안세영은 이날도 경기 중 통증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으로 결국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한편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와 여자복식 세계랭킹 3위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는 나란히 4강에서 탈락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싱가포르 오픈 일정을 마친 한국 배드민턴대표팀은 곧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동한다. 안세영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인도네시아오픈에서 국제대회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6연승 후 추락’…KIA, LG전 스윕패 충격

## 주말 3차전서 3-5 패…양현종 4.2이닝 3실점 강판

KIA타이거즈가 연승 후 추락했다.

KIA는 3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LG트윈스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3-5로 패배했다.

주중 키움전 스윕승으로 6연승을 달렸던 KIA는 29일 2-12 패, 30일 1-3 패에 이어 이날까지 고개를 숙이면서 LG와의 주말 3연전을 스윕패로 마감했다. 그 결과 28승 1무 25패로 승률 0.528을 기록, 순위는 4위를 유지했다.

이날 KIA는 박재현(좌익수)-김선빈(2루수)-김도영(지명타자)-아데를린(1루수)-한준수(포수)-오선우(우익수)-김호령(중견수)-박민(3루수)-김규성(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양현종이 나섰다. 총 94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은 4.2이닝 5피안타(1피홈런) 4사사구 1탈삼진 3실점으로 부진했다.

양현종은 1회말 선취점을 내줬다. 상대 홍창기와 박해민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오스틴 뜬공 이후에는 오지환의 희생플라이로 실점을 허용했다. 후속타자 박동원은 땅볼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은 면했다.

양현종

2회말에는 상대 선두타자 문정빈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송찬의 땅볼 이후에는 구본혁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았다.

3회말 역시 실점 없이 막아낸 양현종은 4회말 볼넷 2개를 내줬으나, 범타 3개로 아웃카운트를 모두 채웠다.

KIA는 5회초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2사 상황 타석에 오른 김규성이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도루로 2루에 안착했다. 후속타자 박재현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폭발시켰다.

양현종은 5회말 다시 리드를 내줬다. 상대 선두타자 신민재는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홍창기 안타 이후에는 박해민의 땅볼로 선행주자를 처리했다. 이어 타석에 오른 오스틴에게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허용했다. 양현종은 오지환에게 볼넷까지 기록하면서 결국 강판됐다. 대신 마운드에 오른 한재승은 박동원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문정빈을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격차는 6회말 더욱 벌어졌다. 조상우는 등판 이후 두 타자를 삼진과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하지만 신민재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곽도규로 교체됐다. 곽도규는 후속타자 홍창기와 박해민에게 각각 1타점 적시타를 내줬다. 오스틴은 라인드라이브 아웃으로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쳤다. 경기는 1-5가 됐다.

7회초 1점을 추가한 KIA는 9회 초에도 1득점에 그치면서 3-5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FC, 네덜란드 센터백 반 흐룬스벤 영입

## 제공권·빌드업 강점…후반기 반등 위한 전력 보강

프로축구 광주FC가 외국인 수비수 보강으로 후반기 반등을 노린다.

광주는 지난 30일 네덜란드 출신 중앙 수비수 태운 반 흐룬스벤을 영입했다. 후반기 순위 반등을 노리는 구단은 추가 외국인 선수 보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1999년생인 반 흐룬스벤은 네덜란드 유소년 클럽 RKSV 마르흐리트와 브라반트 유나이티드를 거쳐 성장했다. 이후 OSS ’20과 RKC 발베이크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는 네덜란드 2부리그인 에이르스터 디비시 소속 FC 덴 보스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다.

특히 FC 덴 보스에서는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 만큼 리더십과 경기력을 인정받았다. 안정감 있는 수비와 강한 투지를 겸비한 센터백으로 평가받으며 팀의 수비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반 흐룬스벤은 194㎝의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갖춘 오른발잡이 센터백이다. 강력한 제공권 장악 능력과 안정적인 수비 조율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후방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빌드업 능력과 전진 패스에도 강점을 지닌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광주는 이번 영입을 통해 2023시즌 팀의 돌풍을 이끌었던 네덜란드 출신 센터백 티모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 티모는 탄탄한 수비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후방 빌드업 능력을 앞세워 광주의 K리그1 상위권 도약에 큰 역할을 했다.

구단은 반 흐룬스벤 역시 뛰어난 제공권과 수비 리딩 능력, 빌드업 역량을 갖춘 만큼 수비 안정화는 물론 팀 전술 완성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입은 광주가 지난해 여름 아이슬란드 출신 공격수 프리드욘슨을 영입한 이후 약 1년 만에 단행한 외국인 선수 영입이다. 광주는 반 흐룬스벤을 시작으로 공수 전반에 걸친 추가 보강을 추진하며 후반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반 흐룬스벤은 “광주의 일원이 돼 매우 기쁘다. 처음으로 해외 무대를 경험하게 됐는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광주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각오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광주가 다시 올라가는 시작점에 내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매 경기 증명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

# ‘손흥민·조규성 멀티골’ 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5-0 완파

## 손흥민 A매치 통산 56호골…차범근 기록까지 2골 남겨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캡틴’ 손흥민(LAFC)과 조규성(미트윌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완파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1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평가전에서 5-0으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전반 40분 김문환(대전)의 땅볼 크로스를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어 전반 43분에는 배준호(스토크시티)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멀티 골을 완성했다.

A매치 통산 55·56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득점자인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58골)에 단 두 골 차로 다가섰다.

후반에는 조규성이 공격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후반 20분 이동경(울산)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든 조규성은 후반 32분 설영우(즈베즈다)의 땅볼 크로스를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이날 두 번째 골을 기록했다.

그 사이 후반 30분에는 엄지성(스완지시티)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성공시키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른 9차례 평가전에서 5승 1무 3패를 기록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0-4), 오스트리아(0-1)에 연패한 지난 3월 평가전의 부진을 끊어내고 지난해 가나전(1-0) 이후 3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홍 감독은 이날 K리거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소속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다. 손흥민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섰고 배준호와 이동경이 2선에서 지원했다.

중원에는 김진규(전북)와 백승호(버밍엄시티)가 배치됐으며, 양쪽 윙백은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김문환이 맡았다. 스리백 수비라인은 이기혁(강원)-조유민(샤르자)-이한범(미트윌란)으로 꾸려졌고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다만 대승에도 부상 악재가 발생했다.

조유민은 후반 부상으로 의무 스태프에 업혀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배준호 역시 상대의 거친 태클에 고통을 호소한 뒤 의무진의 부축을 받으며 교체됐다.

지난 30일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위치한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평가전. 한국 손흥민이 첫 골을 성공시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월드컵 조별리그 1·2차전 개최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고지대 적응을 위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전 캠프를 진행 중인 대표팀은 오는 6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막…1400명 학생 열전 돌입

## 90개교 참가해 6개 종목 경쟁

광주지역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땀과 우정을 나누는 학교스포츠클럽 축제가 막을 올린다.

3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26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90개교, 90개 팀, 14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의 첫 시작은 티볼 종목이다. 지난 30일 개막한 티볼대회는 오는 20일과 27일까지 무등야구장과 첨단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

이후 9월부터는 연식야구와 탁구, 족구, 플라잉디스크, 줄넘기 등 종목별 대회가 지정 경기장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각 종목은 리그전과 토너먼트 방식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승패보다 참여와 화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중심의 축제 형태로 운영된다.

종목별 참가 규모도 다양하다. 연식야구는 18개 팀 324명, 티볼은 33개 팀 626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다. 이어 탁구 24개 팀 240명, 플라잉디스크 6개 팀 108명, 족구 7개 팀 49명, 줄넘기 2개 팀 40명이 출전한다. 송하종 기자 hajong2@